

옷차림풍습에 비유한 속담에 대한 문화언어학적분석

주 학 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정치와 경제에 대하여 잘 알뿐만아니라 역사와 지리, 문화와 예술에 대하여도 잘 알며 전설과 속담도 이야기할줄 알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까.》(《김일성전집》 제29권 186페이지)

우리 인민이 오랜 역사를 통하여 창조한 언어적재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말 속담이다.

속담은 다른 언어적단위에 비하여 문화와의 련계가 가장 밀접한것의 하나로 된다고 할 수 있다. 속담은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오는 과정에 얻게 된 경험과 교훈, 인민들의 기지와 재능에 의하여 만들어진 풍자와 야유 등을 간결한 언어형식에 담아 표현한것으로서 구전문학의 한 형태로 되는 동시에 독특한 어휘론적단위의 하나로 된다.

속담은 그 형식면에서뿐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민족고유의 문화적특질을 반영하고있어 철두철미 하나의 문화적산물로 간주되고있다. 속담에는 민족적인 심리와 감정, 정서가 반영되어있으며 민족고유의 료리도덕, 민속과 생활풍습이 폭넓게 반영되어있다. 이로부터 속담은 문화언어학의 주요연구대상으로 되는것이다.

이 글에서는 수많은 속담들 가운데서 우리 인민이 오래전부터 창조하고 전해오는 옷차림풍습에 비유한 속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 속담들에 반영된 문화언어학적의미를 분석하려고 한다.

우리 민족의 옷차림은 바지와 저고리, 치마와 같은 일상옷 그리고 머리쓰개와 신발, 치레거리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 민족의 옷차림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면서 사회제도의 변화, 경제와 문화의 발전, 생활양식과 미학관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하여왔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전통민족옷차림이 형성되었으며 그것은 우아하고 아름다우면서도 편리한 옷차림으로 세상에 이름떨치게 되었다.

옷차림풍습에 비유한 속담에 반영된 문화언어학적의미를 주제별로 구분하여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옷차림을 중시하는 우리 인민의 독특한 감정과 심리가 반영되어있다.

속담 《옷이 날개》는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면 사람의 인품이 한결 돋보인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며 《못 입어 잘난 놈 없고 잘 입어 못난 놈 없다》는 옷을 잘 입으면 누구나 잘나보인다는 뜻으로 사람의 인품도 옷에 따라간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속담 《하루 굶은것은 몰라도 헐벗은것은 안다》는 집이 가난하여 굶은것은 잘 모르나 옷을 허름하게 입은것은 사람들의 눈에 인차 알린다는 뜻으로서 남에게 궁색하게 보이지 않게 옷차림을 잘하라고 이르던 말이다.

둘째로, 조건과 환경에 어울리지 않게 하는 행동에 대한 야유, 조소가 반영되어있다.

이런 부류의 속담들에는 우리 인민이 즐겨 입고 쓰던 바지, 잠뱅이, 저고리, 치마, 버선, 갓, 감투, 가락지, 반지 등 옷차림구성요소가 다 리용되어있다.

속담 《바지벗고 장도칼을 찬다》는 바지를 입고 차야 할 장도칼을 바지를 벗고 차니 꼴불견이라는 뜻에서 격에 어울리지 않게 틀을 차리는 행동을 두고 비웃어 이르는 말이다.

속담 《잠뱅이에 대님 치듯》은 잠뱅이에는 대님(바지를 묶기 위하여 아래에 두르던 천)을 칠수도 없고 또 본래 치지도 않는다는 뜻으로서 전혀 격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를 비겨 이르는 말이다.

잠뱅이는 농민들을 비롯하여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남자들이 주로 여름철에 입던 아래옷이었다. 잠뱅이는 바지가랭이의 길이를 짧게 하고 너비를 좁게 하여 일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기때문에 대님을 치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 인민들은 옛날에 발을 따뜻이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뿐아니라 발모양을 곱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발가락을 드러내보이지 않으려는 폐의로서 버선을 신었다. 녀자들은 더운 여름철에도 숨버선이나 겹버선을 신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발을 보호하는것과 함께 발뭍시를 곱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풍습으로부터 버선과 관련한 속담들이 많이 나왔는데 속담 《개발에 버선》은 격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음을 핀잔조로 이르는 말이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속담으로는 또한 머리쓰개와 관련한 속담들이 있다.

우리 인민이 즐겨 쓴 머리쓰개에는 갓, 망건, 감투 등이 있었다.

갓은 해빛을 가리우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주로 여름에 썼다. 그런데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방안에서까지 갓을 썼으며 그렇게 하는것을 폐절로 여기었다.

속담 《갓 쓰고 입맞추기》는 《갓 쓰고 넥타이매기》, 《갓 쓰고 자전거타기》와 같이 옛날것을 현대것과 서로 격식에 어울리지 않게 함께 하는것을 비웃어 이르는 말이다.

감투는 말총, 가죽, 형겔 같은것으로 만든 모자인데 턱이 없고 민뜻하였다.

속담 《베감투 쓰고 잔치집 드나든다》는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베감투를 쓰고 남의 경사스러운 잔치집에 드나든다는 뜻으로서 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비웃어 이르는 말이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이 즐겨 리용한 치레거리와 관련한 속담들이 있다.

치레거리는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아름다움을 돋구어주는 수단의 하나로 리용되었다. 치레거리중에는 머리치레거리인 땡기나 귀걸이, 손치레거리인 팔찌와 가락지, 허리치레거리인 장도와 주머니 등이 있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혼인을 축하하거나 어른이 된것을 계기로 장도를 기념품으로 주는 풍습이 있었다. 이 풍습에는 행복을 원하고 온갖 불행에서 자기를 보호해줄것을 바라는 뜻이 담겨져있었다.

속담 《남이 은장도를 차니 나는 식칼을 찬다》는 남이 노리개로 곱게 꾸민 은장도를 차니 자기도 것처럼 한다면 식칼을 차고 나선다는 뜻으로서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에 맞지 않게 무턱대고 남을 따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비웃어 이르는 말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가락지는 은으로 많이 만들었으며 금, 비취, 밀화, 호박, 금패 등으로 하였다. 특히 아무런 장식도 없는 두터운 은가락지를 두개씩 겹쳐 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녀성들의 개인재산이기도 하였다. 이 은가락지를 짝가락지라 하였으며 혼례식때례장으로 많이 보냈고 평소에는 손가락에 끼는것이 아니라 옷끈에 매가지고 다녔다.

속담 《속곳 벗고 은가락지 낀다》는 알몸뚱이에 은가락지를 끼고 걸치레를 한다는 뜻으로서 격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하여 더 해피망측하고 흉한것을 두고 비겨 이르는 말이다.

같은 뜻을 나타내는 속담으로는 이밖에도 《속저고리 벗고 은반지》, 《적삼 벗고 은가락지 낀다》 등이 있다.

셋째로, 일마다 자기 식이 있고 멋이 있다는것을 반영한 속담들이 있다.

속담 《도포를 입고 논을 갈아도 제멋이다》는 례복인 도포를 입고 흙물이 튀는 논에 들어가 일을 해도 제가 하고싶어 하는것이라는 뜻으로서 비록 격에 어울리지 않거나 손해되는 일도 자기가 하고싶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구태여 시비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비껴 이르는 말이다.

도포는 우리 선조들이 례복으로 입던 겉옷인데 소매가 매우 넓고 길어서 손을 완전히 가리울 정도였다. 도포에는 색실띠를 띠었는데 벼슬등급과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당상관은 분홍색, 붉은색, 자주색띠를, 당하관은 푸른색, 풀색띠를 띠었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말기에 봉건적신분제도가 문란해지면서 이러한 규칙이 준수되지 못하고 젊은이는 자주색띠를, 중년은 남색띠를, 노인들은 옥색 또는 재색띠를 띠는것이 일반적관례로 되어있었다. 이런 풍습으로부터 우와 같은 속담이 나오게 되었다.

속담 《갓 쓰고 박치기해도 제멋》은 갓을 쓰고 박치기를 하면 갓이 다 찌그러져 못쓰게 될것이나 그래도 제가 하고싶어서 하는 일인데 무슨 상관이나는 뜻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 하고싶은대로 내버려두라는것을 이르던 말이다.

속담 《털토시를 끼고 계구멍을 찌시여도 제 재미》는 좋은 털토시를 끼고 감탕속에 난 계구멍을 찌시는 것은 일을 하여도 제가 하고싶어 하는 일이니 상관할바가 아니라는 것을 비껴 이르던 말이다.

넷째로, 지나친 린색함에 대한 야유, 조소가 반영된 속담들이 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돈이나 재물보다도 진리와 도덕을 더 귀중히 여기었으며 린색한자들을 가장 미워하고 경멸하였다.

속담 《남의 바지 입고 새벤다》는 제 옷이 아까워서 남의 옷을 입고 옷이 찢지기 쉬운 새초를 벤다는 뜻으로서 제것을 아끼고 남의것을 소비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는 리기적인 행동을 비웃어 이르는 말이다.

속담 《짚신을 뒤집어 신는다》는 짚신을 앞뒤로 골고루 꺾뜨리며 오래 신을 작정으로 뒤집어신는다는 뜻으로서 몹시 린색한 사람을 두고 비꼬아 이르던 말이다.

이 속담은 우리 인민이 짚신을 많이 만들어 신던 풍습으로부터 매우 린색한 사람을 표현한 말이다.

다섯째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고 일이 당도해서야 급해 맞아 서두르는 현상에 대한 조소를 반영한 속담들이 있다.

속담 《철 목은 색시 승교안에서 장옷고름 단다》는 시집가는 색시가 승교(지난날에 한사람이 들어왔고 두사람이나 네사람이 메고 다니게 된 들것의 하나)안에서 장옷의 고름을 단다는 뜻으로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가 일이 당도해서야 부랴부랴 서두르는것을 비껴 이르는 말이다.

장옷은 녀자들이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우기 위하여 머리에서부터 내려쓰는 옷이다. 장옷은 조선봉건왕조초기까지 녀자들의 겉옷이었으나 그것을 입는것이 금지되자 점차 얼굴가리개로 되었다. 장옷을 얼굴가리개로 리용하게 된 초시기에는 입고다니던 장옷을 그대로 쓰고 다녔지만 점차 편리하게 개조하였다. 장옷은 주로 검푸른색 또는 풀색무명이

나 명주 등으로 만들었다.

봉건적 신분제도가 문란해진 조선봉건왕조말기에 와서 여자들이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 있게 되고 장옷을 다시 겹옷으로 입고다닐 수 있게 되면서부터 얼굴가리개로서의 장옷은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속담 《말 태우고 버선 깎는다》는 장가를 보내느라고 신랑을 말우에 태워놓고 신랑이 신을 버선을 깎는다는 뜻으로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있다가 눈앞에 닥쳐와서야 부랴부랴 덤벼치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여섯째로, 결과 속이 다른 경우를 반영한 속담들이 있다.

속담 《너울 쓴 거지》는 겉에 너울을 써서 그럴사 하게 가리웠을뿐 속은 거지에 불과하다는 뜻으로서 차림새와 달리 너절하게 행동하는자를 욕으로 이르는 말이다.

속담 《명주바지에 똥싸개》는 훌륭한 명주바지를 입었지만 실상은 똥싸개를 해놔서 바지안이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는 뜻으로서 겉보기에는 훌륭하지만 속은 더럽기 그지없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옷중에서도 명주옷을 최고로 여기었다. 명주옷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심리가 속담에도 반영되어있다.

일곱째로, 무능력을 비웃고 청하지 않는 일에 참견하는것에 대한 풍자, 조소를 반영한 속담들이 있다.

속담 《바지저고리만 다닌다》는 사람의 몸뚱아리는 없고 바지저고리만 다닌다는 뜻으로서 속이 든것이 없는 무능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속담 《나막신을 신고 뚫 단 배를 쫓아간다》는 걷는데 불편한 나막신을 신고 빨리 가는 뚫배를 쫓아간다는 뜻으로서 능력이 모자라서 하지도 못할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을 핀잔조로 이르는 말이다.

나막신은 나무신이라는 뜻의 고유조선어로서 나무를 깎아 만든 신발인데 꺾두기 또는 격지라고도 불렀다. 나막신은 딱딱하였으므로 신기가 불편하여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으며 먼곳에 갈 때는 신지 않았다. 이러한 풍습으로부터 우와 같은 속담이 나왔다.

속담 《치마가 열두폭인가》, 《치마자락이 넓다》는 치마는 보통 여덟이나 아홉폭인데 열두폭이나 되느냐는 뜻으로서 여자가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것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치마는 저고리와 함께 조선여자옷의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특징짓는 전통적인 옷이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일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옷차림풍습에 비유한 속담들을 리용하여 다양하게 비유하고 풍자, 조소하였다.

옷차림풍습에 비유한 속담들을 보아도 우리 인민이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섬세한 관찰력과 사고방식을 지니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우리는 속담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이 창조한 언어적재부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민족적 전통과 생활양식, 우수한 형상기법과 수법들에 대하여 더 잘 알도록 하여야 할것이다.